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념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곳은 국립 나가사키원폭사망자추도평화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원폭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건물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총 7곳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물이 흐르게 만든 이유는 원폭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물을 원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원폭 투하로 희생된 수많은 분들을 위해 기념관 내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곳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것이 지상에 위치한 직경 29m의 수반입니다. 이 수반에는 약 7만 개의 불빛이 켜집니다. 이 숫자는 원폭이 투하된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의 대략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일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념관의 벽은 실제 삼나무 판자를 콘크리트에 찍어서 만든 것입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삼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역사의 축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에는 12개의 빛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를 향한 소망이 전 세계에 가닿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기둥이 향하고 있는 정면에는 높이 9m의 명부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안에는 원폭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원폭 사망자 명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199권, 19만 5,607명(나가사키 피폭자 한정, 2023년 8월 9일 현재)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부에는 외국 출신의 피폭자분들의 성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부 선반의 오른쪽, 가장 아랫단에는 백지상태의 명부 1권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백지 명부가 안치되어 있는 이유는, 원폭이 투하된 중심지 주변은 온도가 3000도에서 4000도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사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명부 1권을 안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명부 선반의 전방 250m 지점에 원폭낙하중심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폭은 상공 약 500m에서 폭발했습니다. 기념관은 원폭이 폭발한 그때의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이 원폭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이 추모공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